

다산포럼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조교수

네팔 대지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2015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네팔 전역에서 8964명이 사망했다. 빙하가 흔들리고 산사태가 발생해서 량탕 계곡에서는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다큐에서는 지진을 경험한 서양인 여행자들의 시각과 그리고 현지인들의 시각이 교차한다. 량탕 계곡에 지진 이후 처음으로 들어온 헬기는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이동하기 위해 요청한 사설 헬기였다. 그래서 구조 헬기는 계곡에 증중으로 부상당한 이들을 버려두고, 헬기를 부른 서양인들만을 태우려고 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과 다른 서양인 여행자들이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은 멀쩡한 사람들이 등장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타

재난과 탈바꿈

러는 상황에 분노해 헬기를 부른 서양인 관광객들과 조종사를 설득해서 시급한 이들을 먼저 운송하도록 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지진을 만난 한 서양인은 자신이 먼저 구조되는 것이 특권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자신은 에베레스트 등정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불했고,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최고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한다. 네팔 사회에 속하지 않은 일부 서양인 관광객들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네팔인들의 슬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살 길만을 추구했다.

산사태로 가족을 다 잃은 네팔인들은 이런 재난은 관광객이 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연과 신이 노한 것이라고 말한다. 네팔인들에게 히말라야는 신성 그 자체이다. 하지만 이렇다 할 독자적인 산업이 없는 네팔의 경제에서 해외 관광객이 없다면 내수 경제는 돌아가지 않기에, 네팔인들은 재난을 속명으로 여기고 삶을 견디어 간다. 이렇듯 재난은 전지구적 불평등의 모순을 가혹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드러낸다. 네팔의 대지진과 빙하로 인한 산사태는 기후 위기와 연관이 있다.

2022년 한국 사회에도 여름의 폭우, 한파로 인한 포항의 침수, 이태원 참사, 한파 등 다양한 재난이 있었다. 비교적 안전한 나라인 한국에서도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의 발생은 끊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여러 재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구축해오고 있다. 2003년의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의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분명 변화했다.

연이은 재난들은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시켰으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시민 의식을 고양시켰다. 한국 사회는 분명 재난을 속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각자도생만으로 버티어 내고 있지 않다.

지난가를 이태원에서 참사로 인해 158명이 사망했다. 그중 상당수가 청년이다. 이 사회적 재난 이후, 우리 사회는 속명이나 불운, 각자도생, 그리고 혐오와 불신이 아닌 길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 살아남은 이들은 공동의 연대, 협력과 신뢰의 구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탈바꿈'을 통해 재난의 연쇄를 넘어갈 지혜와 사회적 역량을 키울 책무가 있다.

김하림의 차이나 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천안문과 중국의 민족민주운동

동운동의 상징이 되는 1925년의 '5·30운동', 청년 학생들의 항일운동에 기반한 1935년의 '1·29운동' 등과 같은 중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민족민주운동은 모두 천안문 광장에서 출발하였다. 청년 학생들과 일반 민중들이 모두 '가자, 천안문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결집한 공간이다.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중국인들과 함께 겪은 천안문은 이런 면에서 중국인들에게는 랜드마크이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넘어서는 정신과 마음의 마크(sprit & mind mark)이기도 하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선포도 천안문 위에서 광장에 모인 수십 만의 군중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문화대혁명 시기 백만의 홍위병이 모인 곳도 이광장이었다. 1978년에서 1979년에 걸친 짧은 기간의 '베이징의 봄' 시절에 수많은 대자보와 자적사가 나붙은 곳도 천안문 광장이었다. 1985년 청명절에 이전 공산당 총서기였던 후야오방의 사망에 이은 추도식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민주화시위도 천안문에서 시작되었고, 1989년 '6·4운동'도 베이징의 청년 학생들이 교문을 막고 천안문광장에 모이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천안문 광장은 중국 민주화운동의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에 발생한 '백지 시위'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한 항의에서 시작되어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까지 이르렀다고 보도되었다. 신장 우르무치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에서 시작된 백지 시위는 베이징, 상하이, 난징 같은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고, 무명의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상의 회복을 요구했다. 백지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와

중에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변경했다. 백지 시위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삶이 붕괴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한 항의에서 출발하여 공산당에 대한 비판까지 수위가 고조되어 갔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원래 백지 시위는 2020년 홍콩에서 시작되었다. 홍콩의 반정부활동을 제한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2020년 7월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홍콩에서 발생하면서 백지 시위가 시작되었다. 백지는 사실 아무 것도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위력이 있을 수 있다. 백지 위에 보태지는 상상력은 의외로 힘이 강하고 전파력이 빠르다. 백지시위는 구 소련 시절 모스크바에서 있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 사람이 모스크바 광장에서 백지를 들고 서 있었다.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하자, 그 사람이 "여기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라고 항의했다. 경찰이 "네가 무엇을 쓸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를 줄 알아?"라고 욕박질했다.

백지 위에 무슨 글씨가 쓰여질 것인지는 모르면서 아는 것이 되어 버렸다. 6·4 천안문 운동은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층들을 중심으로 의도와 목표가 있는 것이었다면, 백지 시위는 일반 시민들이 정서적인 삶과 일상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SNS는 이런 장면을 순식간에 중국과 세계에 전파해 버렸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발신하는 시대의 힘이라고나 할까.

기고



김민환
호남대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기후변화와 가뭄 대책

있다. '실각' 단계에 접어들어 8월 말부터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도 20%까지 자율적으로 절약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천 유량이 다소 풍부한 6-9월에 댐 공급 용수를 하천에서 취수하여 주암댐과 섬진강댐의 물을 비축하고 있다. 주암댐 상류의 보성강댐에서 수력 발전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최소한의 농업용수를 제외한 물을 주암댐으로 보내고 있다.

여수와 광양 산단에서도 공장 정비 시기를 조정하면 용수를 절감할 수 있다. 섬진강댐에서 공급되는 김제 일부 지역은 진안의 용담댐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소 여유가 있는 장흥댐 물을 목표권 일부에 공급하여 주암댐의 물을 절감할 수 있다.

상호 연계를 통해 용수 공급 댐의 물 감소를 지연시키기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필자가 소속된 학회에서도 협력과 자문을 하고 있다. 내년 봄 영농기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수를 주년 저수지로 양수하고 있다.

이번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의 협조, 시민들의 물 절약, 공단의 용수 사용 절약 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이번보다 더 심각한 가뭄이 안 온다고 누가 확실할 것인가? 홍수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댐과 댐의 연계 운영이 중요하다. 광주·목포·나주 등이 있는 영산강 유역의 생활용수·공업용수 52%를 섬진강 유역인 동북댐과 주암댐에서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광주를 포함한 전남 서부권은 섬진강 유역인

동북댐과 주암댐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더불어 영산강 유역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여 섬진강 유역에서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섬 지역의 경우, 안정적 취수원이 부족하여 가뭄에 취약하다.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전국의 70%인 298개 소의 섬 지역이 있다. 이중 완도군의 5개 섬 지역은 제한 급수를 시행 중으로 주민 불편을 경감을 위해 하천수, 지하수 활용, 운반 급수, 병물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가뭄을 대비하여 주요 수원 간 연계(Water Grid)를 통해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대하고, 해수담수화·지하담 개발·하수 재이용 등 수원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외의 하수 재이용에 관한 계획에 강력한 방안이 포함되길 기대한다. 수원 간 연계에 있어서 중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장흥댐과 주암댐 계통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섬 지역의 경우, 지하수 활용과 더불어 지하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적지 등을 찾아서 맞춤형 가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민들이 가뭄과 홍수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물 관련 관계 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시기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물로 고통받지 않는 복지가 진정한 보편적 복지가 아닐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물 복지 실현을 꿈꾸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社說

기록적 폭설에 피해 속출...신속한 복구 지원을

광주·전남 지역에 사흘간 최고 4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시설하우스와 축사 190여 동이 파손됐고 교통사고·낙상 등 각종 사고도 속출했다.

이번 눈은 대설 특보가 내려진 지난 22일부터 24일 새벽까지 멈추지 쏟아졌다.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를 의미하는 최심 적설량은 광주가 40cm를 기록했다. 관측이 시작된 1939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눈이다. 전남 지역도 최고 30cm가 넘는 적설량을 보였다. 사흘간 최심 적설량은 장성 36.1cm, 화순 30.0cm, 담양 25.9cm, 곡성 20.4cm, 나주 19.5cm 등이었다. 순천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적설량(17.1cm)을 기록했다.

전남도의 조사 결과 이번 폭설로 인해 담양·장성 등 9개 시군에서 마늘·딸기·무·배추 등을 재배하는 95개 농가의 시설하우스 150동(8만 5826㎡)과 13개 농가의 축사 35동(1만 2647㎡)이 파손 또는 붕

괴됐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12억 5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조사가 진척되면서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육상 양식장도 아홉 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광주에서도 비닐하우스 아홉 개 동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쌓인 눈을 치울 새도 없이 폭설이 몰아치면서 도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사흘간 광주·전남에서 119에 접수된 폭설 관련 사고는 교통사고와 낙상, 안전 조치 등 160여 건에 달했다.

눈이 그치자 농민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적설량이 워낙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속한 피해 현장 조사와 복구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폭설에 갇힌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설 작업과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등산 개발, 소송 집고 협상으로 해법 찾아야

광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최근 서진건설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8월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부터 시작했다. 광주시는 2019년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협약 이행 보충금으로 호텔 건립비 등을 모두 포함한 총사업비 4800여 원의 10%인 480여 원을 요구했다. 반면 서진건설은 사회기반 시설 사업비인 200여 원을 기준으로 삼아 10%인 20여 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다 소송전으로 번졌다.

서진건설 측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이 기약 없이 길들게 될 전망이다. 이미 17번째 사업 진척이 없는 데다 서진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41만 7500㎡ 부지에 휴양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사업자가 바뀌면서 수익이 보장되는 '골프장'만 조성된 채 중단됐다.

어등산 개발은 광주에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민의 소망과 위락 수요를 충족하고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했다.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은 이 사업이 광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양측의 이해를 떠나 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적 다툼은 지역 미래를 발목 잡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므로 더 이상의 소송은 집고 소통과 협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어느 날 나는 경제적 필자들이 물려 사는 재개발 지역 동네에 가 철거반-집이 헐리면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세입자가 죽들과 내가 그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철퇴로 대문과 시멘트 담을 쳐부수며 들어왔다-과 싸우고 돌아오다 작은 노트 한 권을 사 주머니에 넣었다."

그제 늦은 밤, 조세희(80)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접했다. 책장에 꽂혀 있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하 난·쏘·공) 20쇄 기념 한정본(2005년 12월)을 꺼내 '작가의 말'을 읽었다. 작가는 "나는 지금도 박정화·김종필 등 이 땅 쿠데타의

을 내서 카메라를 들고 서울 시내 재개발을 앞둔 몇몇 동네를 찾아다녔던 것도 난·쏘·공과 무관하지 않다.

1987년 4월 13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護憲) 발표를 하던 날, 서울 시내 여러 재개발 지역에 철거반이 기습적으로 들어닥쳤다. 그 가운데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을 뒤늦게 찾았을 때 동네는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동네 골목길 한쪽에 마련된 주민들의 임시 비닐하우스 안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내일 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과서가 땅에 묻

혀 버렸어요"라며 울먹 울먹했다. 전국 대신 언론의 열도 들어선 단초(端초)로 그날 일을 짚을 수 있다.

내 청춘의 '난·쏘·공'

조세희 작가가 펴낸 사진·산문집 '침묵의 뿌리' 또한 아끼는 책이다. 기자로서 필생(平生)의 책 한 권을 남긴다면 '프로와 사진, 단편소설을 묶어 작가와 닮은 꼴' 책을 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 작가가 난·쏘·공을 필독서였다. 1980년 중반, 대학문에 들어선 기자 역시 신입생 때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표방하는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작가가 40여 년 전 한국 사회에 던진 물음은 여전히 현 재진행형이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